

경기도 학교 국제교류협력에 새바람 이끈다

경기미래교육, 세계와 교실을 잇다. '26 국제교류협력 지원단 본격 가동

전문 교원 45명 선발, 5개 권역별 맞춤형 국제교류협력 밀착 지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6일 '2026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 지원단(이하 지원단)'을 최종 선발하고 학생과 학교 중심 국제교류협력 지원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번 지원단은 국제교류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도내 학교장, 교감, 교사 등 모두 45명으로 구성했다.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5개 권역 클러스터와 연계하여 지원단을 5개 모둠으로 구성하고, 지역 특색과 단위 학교 수요에 맞는 밀착 지원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지역 국제교류 학습 생태계 구축을 선도할 예정이다.

특히, 지원단은 올해 3월 개통한 경기온라인학교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국제교류협력의 질적 도약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5년도에 이어 세계 교육 돌봄자료를 지속 개발하고, 5개국 언어로 구성된 국제교류 사전교육 콘텐츠를 기획·제작해 학교 현장에

보급한다. 이를 통해 교사들의 국제교류협력 진입 문턱을 낮추고 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 역량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과 지원단이 공동 연계해 학교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국제교류협력 자료를 개발하고, 교원역량 강화 연수 등을 계획해 운영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지원단이 학교 현장을 넘어 새로운 해외 교류 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올 하반기에는 3개국에 지원단을 파견해 새로운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발굴하고 경기미래교육의 글로벌 외연 확장을 위한 노력을 다양하게 기울일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지원단이 현장에서 직접 교류 네트워크를 발굴, 구축함으로써 단순한 프로그램 실행을 넘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국제교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민수 기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맞춰 방문차량 주정차 배려제

재택의료 현장 목소리 반영... 의료원 중심 후방병원 지정·주정차 지원

보건소 '노쇠예방' 시범 착수... 돌봄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빈틈없는 돌봄의료 체계 구축

오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가 재택의료 기반 확충과 현장 지원을 아우르는 '경기도형 통합돌봄의료 모델'을 본격 추진한다.

경기도는 2024년부터 경기도의료원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를 운영하며, 병원급 다학제 방문진료 체계를 전국 최초로 구축해 왔다.

여기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계기로 단순한 서비스 확대를 넘어 현장에로 해소하기 위한 지원정책도 함께 도입한다.

도는 재택의료센터 후방병원을 '방문 진료 시 주차 공간 확보와 응급 상황을 대비한 후방병원 연계가 필요하다'고 응당한 점을 반영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방문진료 현장의 가장 큰 어려움인 가운데 하나인 주정차 문제 해소를 위해 '재택의료센터 방문차량 주정차 배려제'를 도입한다. 가이드라인 마련과 인종 스티커 배부를 통해 방문진료 차량의 원활한 진료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배려 문



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재택의료센터가 대응하기 어려운 중증환자와 응급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을 '재택의료센터 후방병원'으로 지정하고, 재택의료센터를 책임지고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환자 상태 악화 시 신속한 검사와 전문진료, 단기입원으로 연계하고, 이후 다시 지역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택의료의 연속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프기 전에 미리 관리하는 돌봄예방 정책으로 '경기도형 노쇠예방 사업'도 추진한다. 한 번 노쇠해져서 돌봄 대상자가 되면 회복이 어려운 만큼 보건소를 중심

으로 노쇠 전 어르신에게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해 장기요양 상태로의 진입을 늦추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2-3개 보건소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성과를 분석해 확대할 계획이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재택의료센터 확충과 함께 주정차 배려, 의료적 후방지원, 노쇠예방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예방-치료-회복-지역 복귀'로 이어지는 통합돌봄의료 체계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도민 누구나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경기도가 돌봄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민수 기자

용인특례시, 아동 비만 예방 '건강한 돌봄놀이터'



아학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시는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총 10곳을 대상으로 놀이 중심의 체험형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프로그램은 기관별로 주 2회, 12주 과정으로 진행되며 ▲놀이형 영양교육 ▲신체활동 프로그램 ▲비만도 및 건강상태 사전·사후 측정 등으로 구성된다.

영양교육은 식습관 개선을 유도하는 체험형 활동 중심으로, 신체활동 프로그램은 전통놀이와 협동놀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동이 재미있게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여 아동을 대상으로 키·체중 측정과 건강행태 설문조사 실시해 비만도 변화와 생활습관 개선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보건소는 아동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신체활동 증진을 통해 비만을 예방하는 '2026년 건강한 돌봄놀이터'를 30일부터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가 밝힌 학생 건강검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초·중·고등학생 비만군 비율은 29.3%로 나타났으며, 채소·과일 섭취율 감소와 패스트푸드 섭취 증가, 신체활동 부족 등 생활 습관

수원특례시, '수원여행 미리보기' 콘텐츠 제작



콘텐츠를 제작한다. ▲화성행궁 단체 방문 및 문화관광해설사 프로그램 ▲수원화성과 행궁동 카페거리 ▲치킨·맛집·노포 등 미식 체험 ▲광교 등 로컬 데이트 명소 방문 ▲드라마 촬영지와 빛꽃 명소 탐방 ▲남수동 한옥호텔 '남수련'과 수원미디어센터 등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다.

현장에서는 '글로벌 사절단' 콘셉트의 오프닝 행사를 진행하고, 인플루언서 개별 일정으로 역사·미식·로컬 등 다양한 주제를 담은 콘텐츠를 제작한다. 공동과 개별 촬영을 병행해 개별 여행객 중심의 관광 트렌드를 반영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이번 콘텐츠를 활용해 '수원 방문의 해'에 즐길 수 있는 관광 자원을 선제적으로 알리고, 수원시 공식 매체와 연계한 2차 홍보로 국내외 관광객을 유입할 계획이다.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25일 수원 화성행궁과 수원시 일원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 인플루언서를 초청해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여행 콘텐츠를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국제 커플·부부와 워킹홀리데이 인플루언서 8명이 참여해 유튜브 브랜드 콘텐츠 제작했다. 외국인의 시선으로 수원의 관광 매력을 발굴하고, 다양한 여행 수요를 반영한 콘텐츠를 확산할 계획이다.

인플루언서들은 화성행궁을 중심으로 수원의 주요 관광지를 체험하며 콘

하남시, 신우초 통학로 교량 확장공사 착공

하남시는 갑일동 신우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9억원을 들여 학교 인근 교량의 인도를 확장한다고 25일 밝혔다.

학생 수 1700명 내외인 신우초는 등교 시간대 학교 방향으로 보행자들의 동선이 집중되면서 인근 교량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해 통행의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곳이다. 이에 시는 30m 길이의 교량을 개선해 신우초 방향 보도 폭을 기존 35m에서 55m로 확장키로 하고 이날 확장 공사를 착공했다.

공사에는 지난해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9억원으로 충당되며, 학교 수업 및 등·하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정을 집중 관리해 6월 중순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학생들의 통학 동선이 분산될 수 있도록 6월까지 발달된 수변2호공원에 12억원을 들여 길이 40m, 폭 45m의 인도교도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인도교가 설치되면 갑일스윗시티 10단지에서 신우초 후문 방향으로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분산돼 기존 통학로 병목현상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현재 시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인 만큼 공사 기간 일부 불편이 발생하더라도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발달된 인도교 설치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신보, 중동 위기 대응 600억 특별경영자금 시행

중동정세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 본격화

경기신보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이하 경기신보)은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수출입 차질과 유가 상승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와 함께 600억 원 규모의 '중동 위기 대응 특별경영자금'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경영자금은 지난 9일 열린 '중동 정세 악화 대응 경기도 긴급대책회의'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중동 정세 악화로 피해가 우려되는 도내 기업의 자금 애로를 완화하고,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중동 정세 영향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도내 중소기업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지법인(지점) 또는 공장 설립 등 중동 지역에 진출한 기업 ▲2025년 이후 중동 지역으로 수출·납품할 실적이 있거나 예정된 기업 ▲2025년 이후 중동 지역에서 원자재 등을 수입·구매한 실적이 있거나 예정된 기업 등이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중동 지역 국가는 총 14개국으로, 호르무즈 해협 인접 8개국과 기타 중동 지역 6개



국으로 구분된다. 세부 대상 국가는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이라크, 이란, 바레인, 오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예멘이며, 향후 정세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운영될 예정이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5억 원이며, 용자 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후 4년간 원금균등분할로 상환하는 방식이다. 또한 경기도의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 대출 금리 대비 2.0%p의 금리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

다.

시석중 이사장은 "이번 특별경영자금은 지난 9일 경기도 긴급대책회의 이후 신속하게 마련된 후속 지원책으로, 중동 정세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들의 자금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기신보는 앞으로도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해 위기 상황에 놓인 중소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수 기자

GH, 반부패 전략회의 개최... "청렴은 생존 전략"

2026 청렴도 향상 대책 공유·부패취약분야 개선 논의...간부 솔선수범 강조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수원 본사에서 김용진 사장 주재로 삼일감사, 본부장 및 처·실장 등 2급 이상 고위직 임직원 약 50명이 참석한 '반부패 추진 전략 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GH의 청렴경영 의지를 대내외에 선포하고, 올해 추진할 반부패·청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조직의 청렴도를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2025년도 종합 청렴도 평가결과 심층 분석 △2026년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공유 △부패취약분야 개선방향 논의 △부패방지법령 및 청렴소양 교육 등이 다뤄졌다. 특히, 실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간부급 직원들의 솔선수범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진 GH 사장은 "청렴은 단순히 비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도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GH의 생존 전략이자 최우선 가치"라며, "작은 관행, 업무처리방식 하나까지도 청렴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송민수 기자

남양주시, 서울시 기업

투자유치설명회 열기

첨단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 전환을 추진 중인 남양주시가 25일 처음으로 서울에서 기업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했다.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진행된 이번 투자유치설명회에는 50여개 기업과 대학, 협회에서 3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남양주시의 기업 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김영록 벤처기업협회 부회장의 기조강연 후 직접 연단에 올라 3기 신도시에 조성되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의 투자강점을 설명했다.

진건을 일원에 조성되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약 120만㎡ 규모로, 트리플 역세권과 주요 고속도로 관통 등의 편리한 교통망과 남양주변전소(345kV) 구축을 통한 안정적 전력망을 자랑한다.

여기에 토지 조성비가 공급과 세제 혜택, 3기 신도시 조성을 통한 안정적 정주여건, 배후 인프라 등 남양주지역에서는 유례없는 투자 조건을 제공한다.

사업시행사인 LH 측은 이날 투자설명회 참석자들에게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분양계획을 설명하고, 왕숙 1·2지구와 양정역세권, 진접2지구 등 주요 개발사업 현황과 비전을 공유하기도 했다.

안양시 "종량제봉투 물량 문제 없어...평소처럼 구매 하세요"

안양시(시장 최태호)는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종량제봉투 원료 수급 우려와 관련해, 3-4개월 분량의 종량제봉투를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해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공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량제봉투 제작업체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통 상황도 지속 모니터링하며 판매소 공급량을 관리할 계획이다.

다만 시는 최근 일부 시민들의 불안심리에 따른 과도한 사재기로 일시적인 재고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평소 사용량에 맞춰 필요한 만큼만 구매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최근 확산되고 있는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에 대해서도 시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종량제봉투 가격은 시 조례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 없이 단기적인 국제 정세 변화만을 이유로 즉각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종량제봉투는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품목인 만큼 가격 인상 없이 안정적인 공급하는 것이 최우선 원칙"이라며 "쓰레기 봉투는 재판때나 중고 거래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불법유통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포시 통합관제센터

CCTV로 실종아동 신속 발견

군포시 통합관제센터가 생활안전용 CCTV를 활용에 실종아동을 신속히 발견하는 데 기여하며 시민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입증했다.

군포시에 따르면,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장민경씨는 지난 2월 26일 실종 신고가 접수된 아동의 인상착의와 이동 경로를 바탕으로 CCTV 영상을 집중 모니터링하던 중, 해당 아동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발견했다.

이후 즉시 경찰에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이동 동선을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번 사례는 군포시 전역에 설치된 생활안전용 CCTV가 실종자 수색과 범죄 예방 등 시민 안전 확보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관제요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과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더해지며 대응 효율을 극대화했다.

이에 군포경찰서는 아동의 안전한 귀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지난 3월 20일 해당 관제요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현재 군포시 통합관제센터는 24시간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번 사례는 생활안전용 CCTV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지능형 관제와 경찰 협력을 강화해 더욱 촘촘한 안전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